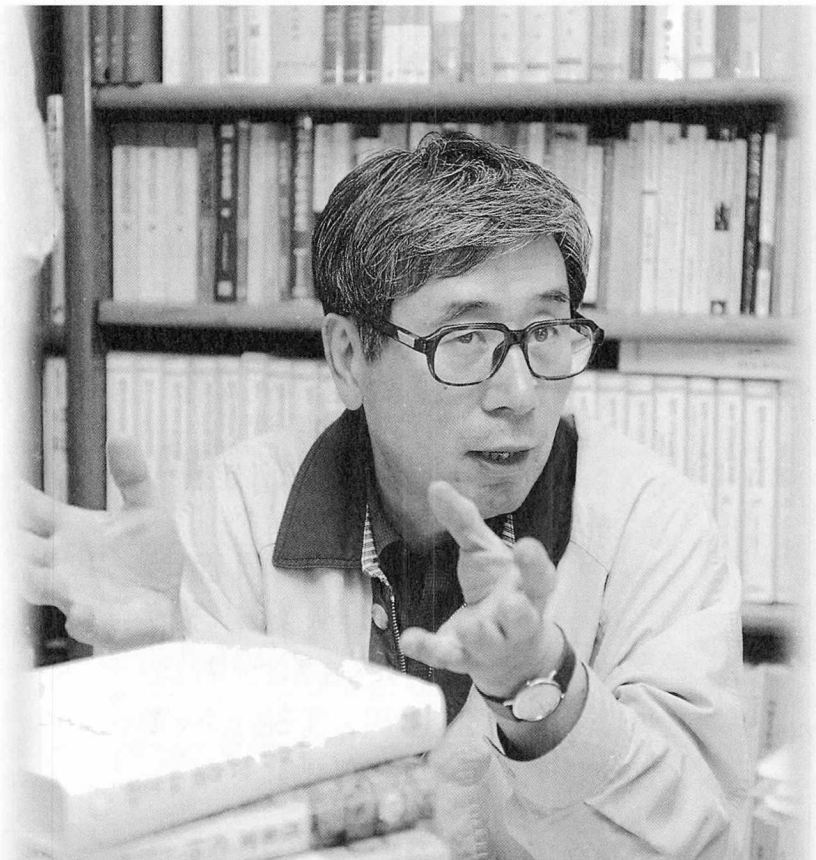


# 세계문학사 다시 쓰는 인문학문의 설계자

《중세문학의 재인식》(전3권) 펴낸 조동일 교수



서울대 인문대에서 법대 뒷길을 거쳐 예술대와 사회대를 지나면 한적한 오솔길이 나온다. 키 작은 관목과 아카시아 나무 사이의 좁은 길을 20여분 남짓 걸으면 다시 아스팔트길에 이른다. 여기서 10여분쯤 자동차와 세속의 소음을 피해 가면 서울대 입구 전철역이 보인다. 이 길이 바로 우리 인문학문의 설계자 조동일 교수(서울대 국문과, 60)가 생각을 가다듬으며 걷는 산책로다. 연구실과 서재를 오가면서 세계문학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구상의 산실이기도 하다.

조동일 교수는 다산의 후예다. 우리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날카로운 비판정신, 양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인문적 열정과 방대한 저술량, 그리고 동학과 후학을 좌절케 하는 학문의 폭과 깊이 때문이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다산이 역사상 완결된 채 후학의 주석과 해석을 기다린다면, 조교수는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재진행형이다.

## 균형잡힌 세계문학사 서술

조교수가 지난 86년 《세계문학사의 허실》(지식산업사)에서 주춧돌을 놓은 '세계문학사 이해의 이론'이라는 건축물이 이제 그 웅장한 골격을 드러냈다. 이번에 펴낸 《중세문학의 재인식》 삼부작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지식산업사)으로 그 기둥과 벽이 완성된 것이다. 전체 10부작으로 기획한 것의 5~7권으로 그

등뼈를 이룬다.

“이번 작업은 중세문학을 재평가하면서 세계문학사 이해의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한 것입니다. 중세문학을 폄하하거나 왜곡한 근대학문의 잘못을 바로잡고 문학이 다른 문명과 긴밀하게 연관돼 유기적인 총체를 이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삼부작은 민족문학에서 동아시아문학을 거쳐 세계문학에 이르는 길을 열어 중세문학의 '명예회복'을 꿈꾸는 야심찬 기획이다. “유럽문명권의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여러 문명권과 민족문학을 대등하게 고찰해 진정한 세계문학사를 쓰는 것”이 핵심 화두다. 즉 유럽의 기독교·라틴어문명권,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교·아랍어문명권,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힌두교·불교·산스크리트문명권, 동아시아의 불교·유교·한문문명권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 첫째권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

학》은 동아시아문학이 동질성과 이질성을 구현한 양상을 비교·고찰했다.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에서는 중세의 공동문어문학에 의해 문명권문학의 동질성이 형성되었음을 해명하고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에서는 책봉체제·금석문·교술시 등을 통해 중세의 보편주의를 입증했다. 이 삼부작을 '여럿이면서 하나로 짜는 열개는 비판과 종합의 방식이다. 유럽문명권 중심주의와 근대지상주의가 비판의 대상이라면 생극론은 비판을 넘어서는 종합의 철학이다.

“중세에는 여러 문명권이 대등하면서도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세계종교와 공동문어의 전통을 공유하면서 보편주의를 실현시켰지요. 하지만 근대는 중세의 보편주의를 부정하고 고대의 정복정신을 계승했습니다. 근대를 넘어서 다음 시대를 이룩해야 하는 지금 중세의 정신주의적 보편주의와 화합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 ‘수입학’을 넘어 ‘창조학’으로

근대를 넘어서는 이론은 근대에 머무르려고 하는 유럽문명권에서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다른 중심을 내세우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교수는 세계사에 중심이 있다는 착각을 부정하고 각 문명권이 대등함을 역설한다. 이를 입증하는 거시적 역사철학이 바로 임성주와 최한기의 기철학(氣哲學)을 계승한 생극론(生克論).

“생극론의 기본명제는 생성이 극복이고 극복이 생성이라는 관점입니다. 조화가 갈등이고 갈등이 조화이며 화해가 투쟁이고 투쟁이 화해입니다. 이는 각 민족과 계급, 그리고 문명권이 서로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르고, 서로 싸우면서 화합하고 화합하면서 싸우는 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조교수의 학문적 편력은 단계적 확산과 심화를 거쳐왔다. 10여년 동안 고향인 경상북도 동북부지방의 민요와 설화 등을 채록하면서 집대성한 구비문학 연구로부터 출발해 한국문학·동아시아 문학의 거쳐 세계문학으로 연구의 시야를 넓혀왔다. 고전의 반열에 오른 《한국문학통사》(전6권, 지식산업사)를 포함해 전작저서만 줄잡아 30여권. 편저와 공저까지 합하면 40권을 훌쩍 넘는다.

거의 매년 3~4권씩의 성과물을 펴내 경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변화가 큰 몫을 했습니다.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능동적 세계화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외국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또한 독자의 후원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문학통사》만 해도 약 3만5천여질 정도 판매됐는데, 이는 그만큼의 독자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는 얘깁니다.”

조교수는 학계에서 쓴소리꾼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우리 대학은 외국이론을 맥락없이 직수입한 ‘수입학’과 창조적 학문활동을 비아냥대기만 하는 ‘시비학’이 판친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그는 바로 ‘창조학’, 즉 국학을 세계화하는 학문이자 세계적 범위의 일반이론을 만들자고 역설한다. 이는 공허한 이론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수입학과 시비학만으로는 우리학문을 살릴 수 없습니다. 시비학이 유행하면서 우리 학계는 관중만 있고 선수는 없습니다. 관중석에서 선수가 못한다고 야유만 하지요, 야구경기에서 타자가 매번 홈런을 치고 투수가 스트라이크만 던질 수는 없지요. 관중이 직접 선수로 나서 같이 뛰어야 합니다. 선수

## ◆ 조동일 교수가 펴낸 책들

《인문학문의 시명》(서울대출판부, 1997): 위기에 몰린 인문학문의 혁신을 위한 일반이론을 제시했다. 과학과 통찰을 아우르는 학문을 위해 인문학문이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학과학지성사, 1997):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출발해 한국·아이누·몽골 등의 구비서사시를 고찰해 동아시아와 세계의 구비서사시를 새롭게 이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세계문학사의 허실》(지식산업사, 1986): 생성과 극복, 조화와 대립이 틀이 아니고 하나이며, 하나가 아니고 둘임을 명시하는 생극론으로 세계문학사의 역사철학을 이룩해

## 한국 출판 산업이 최첨단 정보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 예영커뮤니케이션 출판살리기 캠페인을 마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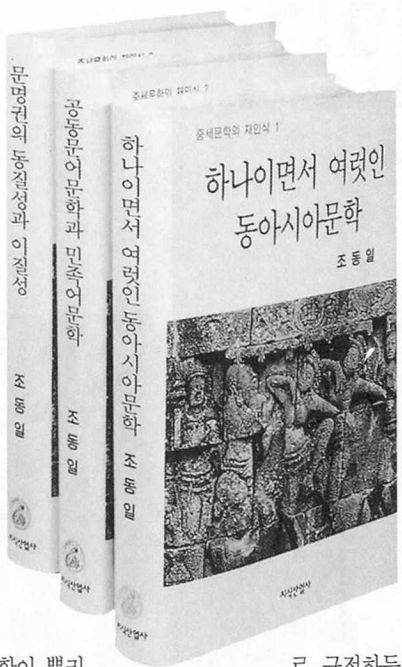
IMF 한파에 출판산업이 기초부터 흔들렸을 때, 우리와 같은 처지에 빠진 출판인들을 격려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출판저널의 1998년 5월 5일자부터 시작된 출판 살리기 캠페인이 이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이 지난 1년간 제안했던 캠페인의 주제들을 되새겨봅니다.

1. 가정전문서점, 어떨까요?
2. 이제는 출판도 유통 브랜드로 길을 뚫어야 합니다.
3. 이제는 출판 유통 실명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4. 전 국민 한 달에 한 권 책읽기 운동
5. 이제는 출판의 거품을 거둬냅니다.
6. 책을 고귀한 상품으로 만듭니다.
7. 도서관을 최첨단 문화정보센터로 만듭니다.
8. 이제는 진짜 편집장을 육성해야 할 때입니다.
9. 건전한 출판 비평을 바탕으로 질높은 출판물!
10. 출판인 멘토운동을 제안하며
11. 복합문화공간에 반드시 서점을 만듭니다.
12. 어린이 전문서점의 장점을 우리 사회가 지켜줍니다.
13. 행복한 책읽기, 가슴 깊이 넘치는 사랑과 지성
14. 1999년은 한국 출판 재도약의 해로!
15. 아무리 급해도 공든탑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16. 서점의 복합화를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17. 출판의 서점 영업 정책의 경색화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18. 출판 인력을 21세기형 출판 전문 인력으로 양육합니다.
19. 한국 출판의 세계화에 관심을 가집시다.
20. 이제 우리도 세계적인 저자를 길러냅니다.

출판산업은 사양산업인가, 성장산업인가? 아직 많은 출판인들이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있게 "성장산업이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출판인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기에는 출판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출판 산업이 최첨단 정보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출판은 그래도 해볼만한 매력적인 사업이다. 우리에게도 아직도 가보지 못한 멋진 길이 펼쳐져 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 CUP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93 장충빌딩 B동 3층  
출판부 T. 2264-7211~3 출판유통사업부 T. 830-8566 F. 830-8567 도모사업부 T. 851-2248  
CUP는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위탁 경영하는 출판사입니다



대 선수로서 서로의 서를 통해 수십년에 걸쳐 거대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학문이 발전하는 것이겠어요."

### 광증에 가까운 학구파

조교수는 국내에서 창조학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를 좀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기한다. 우리 대학은 수입학만 허용되고 창조학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가 지난 96년 언론을 통해 '공개구직' 성명을 발표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자유로운 연구여건을 마련해주면 서울대 교수직을 떠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주당 10시간 강의로 못박은 교육부 시행령 때문에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 대학은 연구자의 발을 묶어놓고 뛰지 않는다고 채찍질하는 꼴입니다. 창조학을 하려면 장외경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연구자의 발목을 묶어둔 채 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은 허구지요. 한때 요지부동의 관료제도를 깨보겠다고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강의 제목을 무시한 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구의 절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교수는 대학과 학회에서 모든 보직을 사양했다. 직위나 명예보다 연구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규정하듯 거의 '광증에 가까운 학구파인 그는 산책과 등산만이 유일한 취미다. 학자로서 새로운 연구주제를 구상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학문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그는 학자를 '시인'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조교수는 2003년까지 작업구상을 이미 마친 상태다. 오는 2천년에 통사 형식으로 문학과 철학의 역사적 관련성을 밝힐 《세계의 철학사와 문학사》 저술에 몰두하고 있다. 이후 매년 《소설의 사회사 비고론》·《세계문학사의 전개》를 펴내고 2003년에는 《별책부록:총색인》으로 세계문학사 이론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미완이긴 하지만 그때쯤 우리는 세계가 경탄할 문화유산 하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박천홍 기자

교체에 따라 문학사의 시대구분을 새롭게 시도한 야심작. 고대문학·중세전기문학·중세후기문학·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근대문학 등으로 시대구분해 동아시아 문학과 세계문학사를 연결시켰다.

《우리 학문의 길》(지식산업사, 1993): 유럽명명권이 주도한 근대학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를 넘어선 다음 시대를 창조하는데 우리 학계가 주도적으로 참가해야 함을 역설했다.

《카타르시스·라사·신명풀이》(지식산업사, 1997): 생극론에 입각해 세계 연극미학의 기본원리를 수립했다. 연극미학의 기본원리를 카타르시스·라사·신명풀이로 보고 이를 비교·고찰하면서 연극 창조 원리를 해명했다.



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문학통사》(지식산업사, 1990~1994): 언어사용, 갈래선택, 문학담담층의